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확 바뀐다

10월 15~11월 13일 개최

광산업·세계적 디자이너 협업
‘글로벌 브랜딩’ 산업화 초점
국내외 대학·기업 ‘R&D’전
LED 국제공모전 결과물 전시



도요이도



오틸 데크



스테파노 지오반노니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비엔날레.’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내세운 컨셉
이다. 올해 처음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분리돼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철
저하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예
술’과 ‘산업’의 모호한 경계에 있었던 이전 행
사들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것이 광주디자인센터
와 최경란 총감독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50억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올해 23억 원으로 줄어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고, 행사 기간도 30일로 대폭 줄어
드는 등 행사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
다. 특히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열렸던 이전
행사들과 달리 지난 3월에서야 겨우 총감독
을 선정하는 등 촉박했던 준비기간과 대다수
사무국 인력들이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경험
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주제전에서 로컬과 글로
벌의 융합을 통한 지역 디자인산업의 브랜딩
화를 시도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첫번째 주제전 ‘동서가치의 융합’은 ‘광주
브랜딩’(Gwangju Branding)을 목표로 한
다. 광주 지역의 대표산업인 광산업을 중심
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하여
글로벌디자인 브랜딩화를 견인하기 위해 기
획됐다.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 오틸 데크, 알베르

토 메다 등 6명의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한경
하, 정수, 송봉규 등 국내 디자이너 3명이 참
여해 조명, 일상용품 등 지역 제조업체 10여
곳과 협업한 결과물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쾌한 디자인나눔’을 키워드로 하는 ‘디
자인콘서트’와 ‘광주문화디자인샵’이 본전
시의 테마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학 및 기업
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디자
인 R&D’전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의 디자인그룹과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
위원회의 협력으로 ‘아시아디자인 허브’
(Asia Design Hub)전을 진행한다. 미래 주
거공간을 제안, 일상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
는 아시아 디자인의 가치를 보여줄 예정이
다.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특별전에서는
뉴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뉴 이탈리아
디자인 2.0’(New Italian Design 2.0)전과
MoMA 특별전, 국제공모전 등이 전시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디자인컨텐츠도 함
께 선보이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 설치되는 세
계적인 건축가 도요이도의 조형물도 기대되
는 작품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공간
역할을 하는 이 조형물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이라는 행사 주제를 상징함과 동시에
주제관과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
할을 한다.

특히 세계인이 사랑하는 상품 알레시(A-
lessi)의 베스트셀러 디자이너 스테파노 지
오반노니,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 등이 큐레이터로 선임됐고, 처음으로
지역협력감독(손영환 목포대 교수)이 선정
돼 지역과 해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개막에 앞서 디자인비엔날레는 ‘2015 밀라
노엑스포’ 기간(7월23일~8월23일) 중에 이
가진 작가의 청자 작품과 양서중 작가의 전
통목조 작품을 트리엔날레디자인뮤지엄에
전시, 사전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LED디자
인 국제공모전(오는 9월7일까지)도 진행 중
이다. 디자인전공자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1~3등에게는 5000~30000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 총감독은 “아시아에서 디자인비엔날레
가 5회 이상 이어져 온 경우는 광주가 유일하
다”며 “현대미술 위주의 광주비엔날레와 차
별화해 단순한 전시가 아닌 산업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자인비엔날레를 지향할 계
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주제인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
은 ‘흥겨운 신이나 맛’으로, 한자로는 새벽
녘, 동이 틀 무렵(黎明), 영어로는 유쾌함, 기
분 좋음(Conviviality)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 땡기는 주말 어디 가지?

광주극장 이상록 피아노 연주회·‘셀마’ 상영
양림동 순수·스튜디오 무빙 공연·프리마켓
노대동 물빛공원 성악·플루트...광장음악회

‘이번 주 토요일, 어디로 문화 나들이 가
실 건가요?’
메르스 여파로 일부 문화 행사들이 취소
되고 있지만, 다채로운 행사가 당신을 기
다리고 있다.

광주극장은 오후 5시 피아노 연주와 영
화상영이 어우러지는 콘서트 ‘피아노로 쓰
는 시네마 다이어리’ 행사를 진행한다.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화양연화’, ‘바
그다드 카페’ 등 인상적으로 감상한 영화
음악을 피아노로 편곡해 연주하는 프로그
램으로 소프라노 유영민,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씨가 함께한다.

콘서트 후에는 2015년 아카데미와 골든글
로브 주제가상을 석권한 ‘셀마’가 상영된다.
1965년 선거 차별 금지에 의해 미국 남부 앨
라바마 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주
도, 역사를 바꾼 마틴 루터킹 박사의 이야기
를 다룬 영화다. 티켓 가격 예매 1만3000원,
현매 1만5000원. 문의 062-224-5858.

양림동에서는 프리마켓과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 그룹 ‘순수’와 ‘스튜디오
무빙’이 함께 기획한 ‘100미터 모꼬지’ 열
정의 백미는 오후 4시부터 양림동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 호랑가시나무 언덕 탐방
로에서 열린다.

지난달 첫째 행사보다 프리마켓 참가자
가 늘어 모두 54개 팀이 셀러로 참여한다.
핸드메이드 수공예품, 디자인 제품과
베이커리·디저트 등 직접 만든 먹을거
리, 커피, 캘리그라피 등이 판매된다.

또 고실용예술아카데미의 댄스 공연과
박완선 재즈트리오의 공연도 열린다. 플
리마켓은 매일 셋째주 토요일 열린다. 문
의 062-651-0972, 062-574-2348.

아외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다면 노



양림동 프리마켓.



영화 셀마.

내동 물빛공원으로 가보자. 오후 8시부터
열리는 ‘광장음악회’에서는 성악곡과 플
루트 연주곡을 만날 수 있다.

베이스 김일동씨가 ‘백학’,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협담’을 들려주며 소프라노 장
미리아씨가 오페레타 ‘박쥐’ 중 ‘내가 시
골 소녀를 연기한다면’, 바리톤 박인승
씨가 조두남 곡 ‘벚노래’와 ‘세빌리아의 이
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를 선
사한다. 그밖에 소프라노 박수연, 테너 김
지운씨가 ‘그리운 금강산’과 ‘당신의 모든
것’을 들려주며 전 출연자가 ‘라 트라비아
타’ 중 ‘축제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그밖에 플루티스트 손성아씨가 프랑스
의 ‘헝가리안 댄스 1번’을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희곡 ‘흥놀이’ 참가자 모집

문화예술작은도서관 23일까지

지난 3월 문을 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
술작은도서관이 연극과 희곡작품을 연결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2015 흥(興)
놀이 프로젝트_10분’을 개설하고 프로그
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극작가의 희곡을
독회 형식으로 읽고 몸짓으로 풀어냄으로
써 나만의 흥을 찾는 프로젝트로서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놀이하는 사람들’ 이번
프로젝트 모토다.

희곡 감상, 창작, 시연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장르로 나눠 ▲흥에 대한 이야기,
감각깨우기 등 흥에 대해 알아보기 ▲천승
세 작 ‘꽃물은 터졌어라우’, 함세택의 ‘동
승’, 오영진의 ‘맹진사대 경사’ 등 희곡 독
회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23일까지 문화재단 홈페이지(ht-
tp://www.gicf.or.kr/cms/)나 문화예
술작은도서관 블로그(http://blog.
naver.com/cas17968)에서 신청서를 내
려 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15명. 문의 062-670-796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남웅 작
‘창포꽃에 물들다’

살랑살랑 단오 풍경

‘부채 위에 그려진 시원한 단오 풍경’
대인예술시장 예술인창작스튜디오 다다
는 오는 27일까지 ‘선경’(線景)을 주제로 6월
세시봉 전시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 단오절을 맞아 부
채 위에 단오의 선경을 담아보기 위해 기획
됐다.
전시에는 지역 작가 29명이 참여해 부채

다다, 27일까지 세시봉 전

위에 단오의 풍경들을 익살과 해학을 담아
도드라지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박종석은 신운복의 ‘단오풍정’ 일부를 재
현해 관음증을 드러내고 신앙호는 수(壽)자
를 이미지화한 부채로, 김염은 복숭아나무
로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 윤남웅과 전현
숙은 머리감기와 떡 감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이창훈과 김경란, 마리아 하포넨코

는 연지곤지를 주된 소재로 단오풍습을 그려
냈다.

김정연과 윤세영은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풍습을 표현했고, 조은솔과 서영실은 창포를
화폭가득 담아냈다. 또 김병택은 바닷바람
을, 이재문은 산바람을, 김준표는 장풍을 부
채에 실어 청량감을 선사하고 있다.

이다예와 이승일, 흥희란은 단오 먹을거리
를 한상 푸짐하게 차려냈고 이상호와 채지
운, 김재영은 노란 꽃향기를 실어 보냈다. 문
의 010-7774-3597. /김경민기자 kki@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가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방, 동부소방서